

시민주권 정부 수립... 대한민국 남부권 성장축 도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3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강조한다.

재정지립도 33.8%, 2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지닌 광주의 현실과 22개 시·군 중 20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전남과 광주가 합쳐짐으로써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가 구상 중인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 규모가 커진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도시다. 그 방향을 명확히 설계하기 위해 통합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성장통합이다. 전남의 에너지와 자원, 광주의 AI와 산업 역량을 결합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반도체 등 신산업이 연결된 거대한 일지리와 소득 생태계를 만들 구상이다. 농산어촌과 섬 지역까지 새로운 산업과 관광, 서비스 기회가 확산되는 성장 구조도 구축한다.

균형통합도 중요시 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 어느 한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과 인사,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는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사회 원칙도 빼놓을 수 없다.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에 대응해 시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돌봄, 이동, 교육, 주거, 소득의 기본을 특별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전략을 기반으로 전남·광주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하는 녹색도시 원칙과 시민 주권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든다.

특히 민 당선인은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떠받칠 다섯 개의 기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 주권을 꼽는다.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시민이 통합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만이 지속 가능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시민주권 정부 수립'을 내걸었다.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의사결정을 전면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특히 4명의

부시장에 대해 시민 추천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인사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민주당의 '당원주권'에 이어 '시민주권'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민 당선인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기업 유치에도 집중한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중심 글로벌 초첨단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 100원 시대'를 열어나갈 구상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산형 전력망'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실현한다.

그가 도입하려는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광 발전과 ESS 저장 전력, 기존 계통 전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전력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을 경우 연평균 전력 단가가 kWh당 약 83원 수준

시민 시정 참여 확대... 의사결정 공개·시민 참여 제도화 산업용 전기 100원 시대 실현...글로벌 초첨단 기업 유치 동·서·중남부·광주권역 역할 분담...성과 순환 구조 설계

까지 낮춰지며, 운영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다는 게 민 당선인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kWh당 180원 정도이니 절반 가까이 저렴해 지는 셈이다.

또 한가지 조건으로 그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거래까지 전담하는 플랫폼인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단 전력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민 당선인은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기업에 값싼 RE100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대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부산·여수·해남·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해 에너지와 데이터가 결합된 첨단 산업 인프라도 완성해 나간다.

민 당선인은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하나의 중심도시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동부·서부·중남부·광주권역으로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순환시키는 구조로 설계할 방침이다.

먼저 동부권은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제조 전환과 수출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출개발청'을 설치해 우주항공, 첨단 제조, 미래 소재 산업 등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산업 전환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부권은 목포·신안·영광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

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이자 글로벌 관문 산업권으로 발전시킨다.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거래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산업이 결합된 에너지 기반 데이터 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중남부권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바이오 산업과 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형 생활경제권으로 육성, 스마트 농업과 식품·바이오 산업을 연결해 농촌 지역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할 구상이다.

광주권은 AI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AI 실증 전환도시이자 스마트시티로 키워 나간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유치해 산업과 행정,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미래 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민 당선인은 제조·에너지·녹색·문화가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신경제 구조'를 구축,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압도적 성장으로 통합 성공 이끌 것”

당선인 포부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이끌어갈 민형배 당선인이 3일 “시민 주권 정부를 세워 압도적 성장으로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당선인은 이날 당선 확정이 발표된 직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한 통합특별시의 문 앞에 섰다”며 “이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대한민국 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기회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지역이 주도하

전남 에너지·광주 첨단 AI 역량 결합...산업·삶의 질 향상 시민주권 정부 약속...“시민의 뜻, 시정 중심 행정 구현”

는 압도적 성장의 길을 전남광주가 가장 먼저 증명해 보일 것”고 덧붙였다. 민 당선인은 “선거 기간 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말씀을 특별시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며 특별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신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전남의 에너지와 광주의 첨단 AI·문화 역량을 결합해 산업과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 소득과 삶의 질을 높 이겠다”고 말했다.

또 성장의 결실이 모든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청년에게는 고향에서 꿈꿀 기회를, 아이 키우는 가정

에는 든든한 돌봄을, 어르신에게는 가까운 병원과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겠다”며 “그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시민 주권 정부를 세울 것도 약속했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의 주인은 특별시민”이라며 “주권자 시민의 뜻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당선인은 “새로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시대가 시작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 동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시대 이끌 ‘개혁·혁신 아이콘’

민형배 당선인은 누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개혁·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기자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뒤 시민운동가, 기초단체장,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의 등을 거치며 쌓아온 복합적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해 늘 선명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주주의, 자치, 제도 개혁이다. 매년 이슈 속에서 거침없는 언행으로 치열하게 투쟁, ‘전투토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원조 천명’으로 분류되는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해남마산초등학교, 해남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전남대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대학 시절 5·18을 경험한 그는 이후 기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전남일보에서 12년 동안 활동하며 지역의

기자·시민운동가 출신...당정청 ‘복합 경험’ 등 강점 검찰개혁 앞장·호남 첫 이재명 지지 선언 ‘원조 천명’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언론계를 떠난 그는 시민사회로 자리를 옮겨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에 앞장섰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며 중앙과의 접점을 넓혀나갔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광산구청장 시절이다. 2010년부터 8년간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최초’의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해왔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장 직 선제 등은 지방자치의 실현이자 성과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치발전·사회정책비서관을 맡게 되는 밑바탕이 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노승일 후보를 찍고 전국 최고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본회의 출석을 100%, 법안 발의 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모두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검찰 개혁 국민운동의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김수환박)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할 정도였다.

이는 그의 정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발휘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단번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일로 2023년 민주당으로 복당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와 함께 거론될 만큼 ‘원조 천명’ 이미지를 굳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